


"깨어라, 소녀야!"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야 이로에게는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병들었지만 아무도 낫게 할 수 없어서 너무 슬펐습니다.

어느 날 야이로는 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억 절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3서 2절)

중심생각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이로는 마태의 집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딸을 위하여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즉시 예수님은 야이로의 소원을 들어 주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때 야이로의 하인이 많은 사람들을 헤치고 나아와서 “주인님, 따님이 방금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마시오.”라고 하시며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족들이 매우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야이로와 그의 부인, 예수님의 세 제자만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린 소녀가 눈을 감은 채 숨을 쉬지 않고 누워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딸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린 소녀는 숨을 쉬기 시작했고 눈을 떴습니다. 소녀는 일어나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와 그의 가족들은 너무 기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없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야이로를 사랑하시고 야이로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참고서적
마가복음 5:21-43
시대의 소망 342, 343

기억정의우기

기억절을 세 번 읽고 따라 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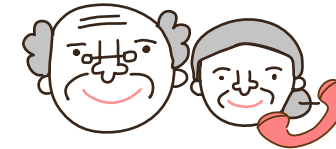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해보기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안부전화를 드려보세요.



해보기

아플 때 돌봐주신 부모님께 아래와 같이 감사를 전해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써보기

글씨 조각에 색칠하세요.

깨 어 라 소 녀 야

